

“임실형 청년농업 통합 정책 필요”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

10년후 임실비전기획협동조합, 청년농업인·청년일꾼 육성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가져

임실군에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적 청년 정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0년후 임실비전기획협동조합(준)은 지난달 29일 임실농협본점 대강당에서 청년농업인과 지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형 청년농업인 및 청년일꾼 육성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일 열린 ‘휴먼라이브러리 구축 및 활용 방안’ 논의에 이은 연속 정책 논의로 임실의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오은택 청년농업인 대표(41, 임실주용농장)는 인사말에서 “지역이 소멸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유입과 정착이 필수”라며 “임실군 현실에 맞는 청년 육성 전략과 킬러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오광진 준비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배균기 박사(전북연구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청년농업인은 18.9% 감소했으나 전북은 30.1% 감소해 이탈이 더욱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귀농·귀촌 비승계농의 경우 소득과 기반이 승계농의 60% 수준에 그치며 농지 확보와 자금 부족이 가장



10년후 임실비전기획협동조합(준)은 지난달 29일 임실농협본점 대강당에서 ‘임실형 청년농업인 및 청년일꾼 육성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 유 박사는 “기존 정책이 초기 진입에만 집중돼 지원이 끊기는 4~5년 차 데사벨리를 넘기기 어렵다”며 “진입중심에서 정착과 성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 사례 발표에 나선 유정규 박사(전 행복의성지원센터장)는 소멸위기 지역이었던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소개했다.

유 박사는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주거, 복지, 문화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과 스마트팜 아카데미를 통한 단계별 청년·정착 시스템, 민간 주도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실군 적용 방안으로 △임실형 한달살기 등 탐색 기회 제공 △소득 안정을 위한 연 260만원 수준

의 직불금 도입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청년정책 통합 ‘깔때기 시스템’ △이를 전달할 청년육성 중간지원조직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사례 발표에 나선 백아름 대표(청년이그린협동조합)는 폐교를 활용한 공동체 거점 조성과 농식품 생산·판매 경험을 공유하며 “귀농 초기의 텃세와 자본·경험 부족 문제는 꾸준한 소통과 사람 중심의 접근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육성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천 임실4·H연합회장은 “청년창업농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도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착 유지 중심의 정책전환과 관계·연결 구조 지원, 농업과 비농업 청년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특수건강검진·생생카드 지원 등 7개 사업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총 14억 2,1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출산여성도우미 지원 등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주요 건강문제로 지적되는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 피로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지원, 해당 검진에는 일반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 등이 포함된다.

올해 검진 대상은 51세부터 80세까지의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검진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또한 농작업, 충전식 분무기 등 10종의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 올해부터는 자격이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으로 확대되어 농촌뿐 아니라 도시지역 여성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13만원 상당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지원,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를 운영해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고충 상담, 영농교육,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번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월 원광어린이집과 대신 윤교어린이집 2개소에서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최대 100일 동안 농가 도우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농업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농작업 현장에 미생물 친환경 화상실 설치를 지원, 대상은 들녘, 하우스 밀집 지역, 과수·화훼 등 집단 작물 재배 지역 가운데 3호 농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이다.

남원시는 1월 사업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상반기 집중 홍보와 신청 접수 등을 통해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최대 15만원 지원

순창군은 응급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급급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급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한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간 5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순창군보건의료원의 의료지원과 원무팀(063-650-5321)에 문의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대응 전담팀 가동

남원소방서(대응예방과장 안동춘)는 2026년 상반기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폭행 피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체계는 △사전 대비 단계 △폭행 발생 시 대응단계 △사후 수습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특히 사전 대비단계에서는 구급대원 대상 폭행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하고, 구조 구급팀장, 현장대응단 각 팀장, 구급담당자, 소방행정과 직원 등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피해 발생 시에는 전담반의 행정지원과 긴급 심리지원 등 피해 대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철회 소방사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원 안전 확보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급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취약계층 명절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임실군이 민선 7기부터 8년째 꾸준히 추진한 취약계층 명절지원금 대상 을 올해는 더욱 확대, 추진한다.

군은 심 민 군수가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설과 추석명절에 취약계층에게 지원한 명절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확대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차상위수급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한정했지만, 개정 조례를 통해 차상위수급자 전체 장애인과 한부모가족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가구는 15만원, 2인가구는 20만원, 3인이상 가구는 25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며, 이 번 설에는 총 1억9,300만원 규모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2월 5일부터 12개 읍·면사무소 방문접수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한 찾아가는 가정방문 전달방식도 병행해 설 명절 이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시민공감 소통 한마당 이어가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시민과의 소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2026 시민공감 소통 한마당을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산동면을 시작으로 관내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정책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소통 한마당 현장에서는 주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건의사항이 다수 제기

되었으며, 이는 재해 예방과 일상 불편 해소에 대한 시민들의 공통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 참석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 경로당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소통을 병행하고,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 방법과 건강관리 지원 체계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으며, 수어 통역을 배치해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본격 준비 돌입

순창군은 지난달 29일 어울림센터 회의실에서 제21회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축제 추진 방향과 예산 편성 등 주요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제20회 순창장류축제의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지난해 열린 제20회 축제는 3일간 약 1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큰 호응을 얻었고, 관광객 만족도 5점 만점에 4.10점을 기록했다. 지역경제에 약 3,597억 원의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순창장류축제 2026년 전라북도 시·군 대표 축제 육성사업에서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제로도 이름을 올렸다.

이어 제21회 순창장류축제 추진계획(안)이 보고됐다. 제21회 축제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순창발효테마파크 일

순창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본격 준비 돌입



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총 13억 3,5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체험·참여 프로그램, 문화공연, 전시·판매, 공식행사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장류 고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 K-발효문화축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통 장류문화와 현대 식문화 콘텐츠를 융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중점개선 및 검토 사항으로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상생형 축제 운영, 지역 문화예술단체 참여 확대,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강화, 친환경·안전 중심 축제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